

The Diplomat, 2025. 11. 4.

한국의 AI 대전환, GPU 26만개 확보의 의미



- 한국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 도약을 선언하고, Nvidia와의 대규모 협력을 추진하며 AI 기술 주권 인프라 확보에 집중



- 정부는 국내 기업 및 공공의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GPU 26만 개를 확보하고, AWS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 등 국가적 AI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

▶ APEC을 무대로 AI 허브 도약 선언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요성과 중 하나는 한국 주도로 제안된 APEC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2026-2030) 채택이다. 이니셔티브는 AI의 역할 증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특히 AI 모델이 서구권 언어에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지식, 문화, 언어를 AI 혁신에 통합할 필요성을 명시했다. 나아가,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AI 역량 구축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는 아태 AI 센터 설립을 결정하며, AI 혁신의 거점으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정치적 위기로 다소 흔들렸던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미지를 회복하고 글로벌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블랙웰 칩 26만 개, 산업을 재편할 '피지컬 AI'의 심장'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기간 중 발표된 엔비디아와 한국 정부 및 기업 간의 대규모 GPU 공급 계약은 한국의 AI 야망을 현실화하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Blackwell) 칩 등 총 26만 개의 GPU를 확보함으로써,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처리 능력을 아태 지역 Top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정부는 이 중 5만 개의 칩을 활용하여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고, 공공 부문 사용을 위한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들도 할당받은 GPU를 AI 팩토리, 디지털 트윈, 산업 및 모빌리티 모델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프라 확보는 AWS가 2031년까지 한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 AI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적 과제 해결 의지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등 국가적 과제를 AI 기술 주권을 통한 공공 부문 자동화로 해결하려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모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결정도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러한 과감한 추진전략은 전력망 부하, 디지털 인프라 안전성 문제, 개인 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위험을 동반하는 것도 사실이다. AI 기술 주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엄격한 사전 평가와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월의 용어 AI 기술 주권, AI 고속도로

출처 : 1) The Diplomat(2025. 11. 4), What the 2025 APEC Summit Means for South Korea's AI Ambition.

2) 이투데이(2025. 11. 2), 전세계에 AI대전환 부각...韓경제 '혁신엔진' 탄력받나